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이슈브리프

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특징 변화

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 현황과 정책금융 역할

차세대 신재생에너지, 해상풍력의 현주소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주간 KDB리포트 Contents

이슈브리프

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특징 변화	1
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 현황과 정책금융 역할	3
차세대 신재생에너지, 해상풍력의 현주소	6

금융시장

금리 · 환율 · 주가	9
--------------------	---

우리나라의 對中 수출 특징 변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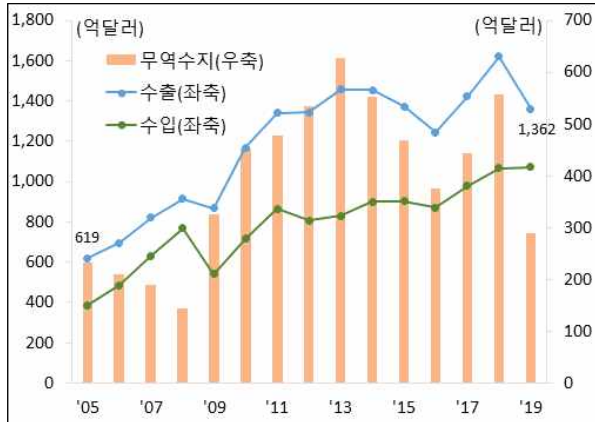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오세진 (ohsejin@kdb.co.kr)

- ◆ 우리나라 對中 수출은 중간재를 위주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, 산업화 초기에 필요했던 상품은 수출이 감소하고,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고기술 상품의 수출은 증가
- ◆ 중국이 적극적 산업육성을 통해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을 대체하고 있어, 향후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국의 산업고도화에 대응한 기술경쟁력 확보가 매우 중요

□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중간재를 중심으로 증가 추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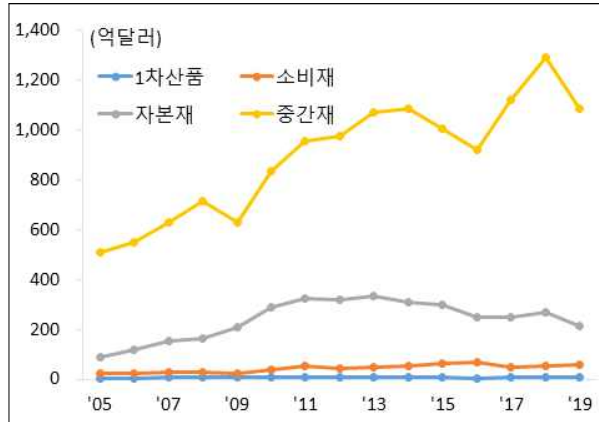
- 對中 수출 규모는 반도체 등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감소하기도 하였으나 장기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임
 - 對中 수출 규모는 '05년 619억달러에서 '19년 1,362억달러로 동 기간 중 약 2.2배로 증가
-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*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, 자본재** 수출은 감소하고, 소비재 수출은 미미한 수준 지속
 - * 중간재 : 생산과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부분품 등을 의미
 - ** 자본재 : 생산을 위해 이용되는 제조용 기계·장치 등의 생산수단을 의미
 - 對中 수출에서 중간재 비중이 79.4%('19년)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중간재 수출 의존도가 대단히 높은 상황
 - 반면, 자본재 수출은 건설기계 등 저부가 제품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, 소비재 수출은 화장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임

對中 수출입 추이
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가공단계별 對中 수출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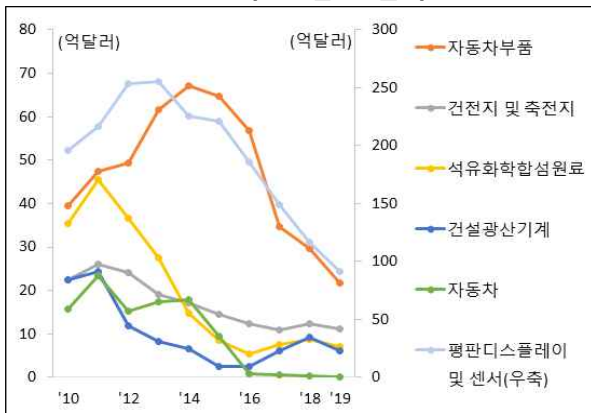
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對中 수출이 증가세이나, 과거 수출 규모가 컸던 제품의 對中 수출은 감소하고, 고기술 중간재와 자본재에 대한 수출은 증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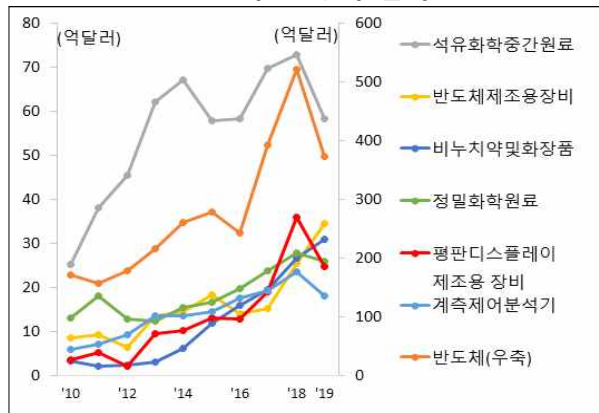
- 과거 높은 對中 수출액을 보였던 평판디스플레이, 자동차부품 등은 감소세를 지속
 - 중국 정부의 자국기업 육성 전략으로 디스플레이, 자동차부품, 건설기계 등에서 수입 대체율이 상승하며 해당 품목의 우리나라 對中 수출 감소
 - 건전지 및 축전지(2차전지 등)는 수입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자국산 사용을 장려하여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액 지속 감소
- 반면, 기술적 이유 등으로 중국의 자급율이 낮은 반도체,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, 정밀화학원료 등은 對中 수출 증가세 지속
 - 반도체는 중국의 전자산업 발달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, 기술력 부족으로 자체 생산이 어려워 한국산 제품 수입 증가
 - 평판디스플레이의 한국산 수입은 대폭 감소하였으나, 디스플레이 제조용 장비 수입은 증가

對中 수출 감소 품목



주 :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는 우측, 나머지는 좌측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對中 수출 증가 품목



주 : 반도체는 우측, 나머지는 좌측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□ 향후 對中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산업고도화에 대응한 고기술·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

- 우리나라의 對中 수출은 중국의 산업발전 초기에 필요한 제품에서 산업고도화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중간재 수출로 변화 중
 - 중국의 산업이 더욱 고도화 될수록 현재 높은 對中 수출액을 보이는 반도체, 각종 제조용 장비 등도 향후 수입 대체율을 높여갈 것으로 예상
- 중국에 대한 수출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기술격차를 유지하면서 중국이 필요로 하는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

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 현황과 정책금융 역할

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
이 시 은 (selee@kdb.co.kr)

- ◆ 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)은 1956년 설립된 사회개발은행으로 유럽 41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, 사회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대출, 보증, 보조금 등의 형태로 금융 지원
 - 주로 채권발행을 통한 자체조달 자금과 EU 등으로부터의 재원을 일부 활용하여 포용적 성장 촉진, 취약계층 지원,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는 프로젝트를 지원
- ◆ 저출산·고령화, 지역 불균형, 기후변화 등의 사회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성장 지원에서 나아가,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

□ 유럽평의회개발은행(CEB, Council of Europe Development Bank)은 '56년 설립된 사회개발은행으로 현재 유럽 41개국이 참여

-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의 국가난민 및 인구과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8개국이 설립한 재정착기금*이 시초이며, '99년 CEB로 명칭을 변경
 - * Council of Europe Resettlement Fund for National Refugees and Over-Population
 - 이후 주택, 직업, 교육 등으로 지원분야가 점차 확대되었으며, 현재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이 주된 역할
 - 프랑스(16.735%), 독일(좌동), 이탈리아(좌동), 스페인(10.914%), 터키(7.096%) 등 유럽 41개국이 지분을 보유
 - 초국가기구로 금융규제나 과세 대상에서 제외
- 주로 국제자본시장에서 채권발행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, EU 등의 재원으로 마련된 다양한 기금도 일부 활용
 - 우량 신용등급(Fitch AA+/S&P AAA/Moody's Aa1)을 바탕으로 '19년중 45.2억 유로의 채권 발행, 통화별 비중('18년)은 유로화 73.3%, 달러화 16.4%, 파운드화 9.4%
 - EU, CEB 회원국, EIB(유럽투자은행) 등의 재원으로 조성된 1.7억유로 규모의 26개 신탁기금을 운영, '18년중에는 약 4,100만유로의 기금 조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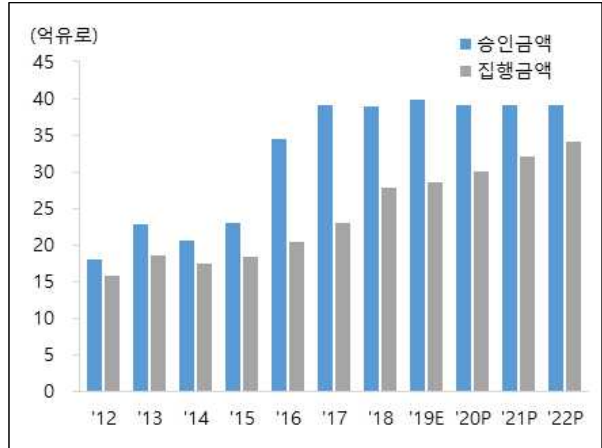
CEB의 주요 재무현황

(단위 : 백만유로)

구분	'18년말	'19.6월말
총자산	24,348	29,406
대출자산	18,401	22,850
총부채	21,325	26,377
회사채	19,557	24,389
총자기자본	3,023	3,029
이자이익	149	78
순이익	97	53

주 : 이익은 각각 '18년 연간, '19년 상반기 기준
 자료 : CEB

CEB의 대출 추이 및 계획



주 : '19년은 감사전 기준, '20~'22년은 계획치
 자료 : CEB

□ 회원국의 중앙정부, 지방정부, 공공기관, 금융기관 등에 대출, 보증, 보조금 등의 형태로 금융 지원하고 있으며, 지분 투자는 내규상 금지

- '17~'19년중 연평균 39억유로의 대출이 승인되었고 집행액은 평균 26억유로이며, '20~'22년중에는 연평균 32억유로를 집행할 계획
 -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프로젝트 지원을 확대*하고 있으며, 금융기관에 온렌딩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자금수요자의 금융지원 접근성 제고
 - * 지방정부 프로젝트 지원 비중은 '15년 31%에서 '18년 41%로 증가(승인액 기준)
 - 터키, 폴란드, 루마니아, 헝가리 등 유럽 중부·동부·남동부에 소재한 22개국을 집중 지원 대상국*으로 분류하여, '00년대 이후 지원 비중을 지속 확대
 - * 22개국의 지분은 17%에 불과하나, 동 지역 지원 비중은 66%('18년 위험가중자산 기준)
- 주로 은행 수익의 일부를 적립해서 마련하는 SDA(Social Dividend Account)를 통해 사회적 영향력이 높은 분야에 보증 및 보조금 지원
 - 형태는 이자 보조, 리스크가 높으나 사회적 영향력이 큰 프로젝트 보증, 프로젝트 전반에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술 지원, 보조금 등의 네 가지로 구분
 - '19.6월말 SDA 규모는 5,034만유로로, 네 가지 지원형태별로 할당된 비중은 각각 43.8%, 38.7%, 13.6%, 3.8% 순

□ CEB는 유럽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문제 해결(Social Mandate)을 위해 ① 포용적 성장 촉진, ② 취약계층 지원, ③ 지속가능한 환경 도모를 주요 전략과제로 추진

- 번영된 미래를 보장하는 경제적 기회에 모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 촉진을 지원
 - 세부적으로는 주거, 복지, 보건, 교육, 노동시장, MSMEs(Micro, Small and Medium Enterprises) 등이 주요 지원대상
- 젠더, 청년, 노숙자, 장애인, 이민자, 난민 등의 쟁점과 관련한 취약계층 지원
 -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호소, 의료 서비스 제공 등의 긴급지원*부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안정과 사회통합까지 전개
 - * CEB와 회원국, EIB가 출자하여 설립한 이주민 및 난민지원 기금인 MRF(Migrant and Refugee Fund)를 통해 보조금 등 긴급지원
- 온실가스 배출 감소, 에너지 및 천연자원 사용 효율성 개선, 기후변화 대응 등 지속가능한 환경을 도모하는 프로젝트 지원

□ CEB의 사업영역을 통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

- 앞서 보았듯이 CEB의 주요 역할은 유럽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지원에 초점
 -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KfW, DBJ 등 주요 선진국 정책금융기관들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, 지역개발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수행중
- 저출산·고령화, 지역 불균형, 기후변화 등 유사한 사회문제에 직면한 우리나라도 향후 사회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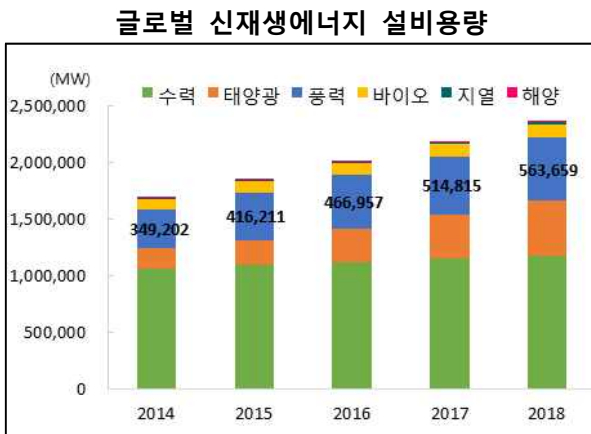
차세대 신재생에너지, 해상풍력의 현주소

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
구 지 선 (jsvm48@kdb.co.k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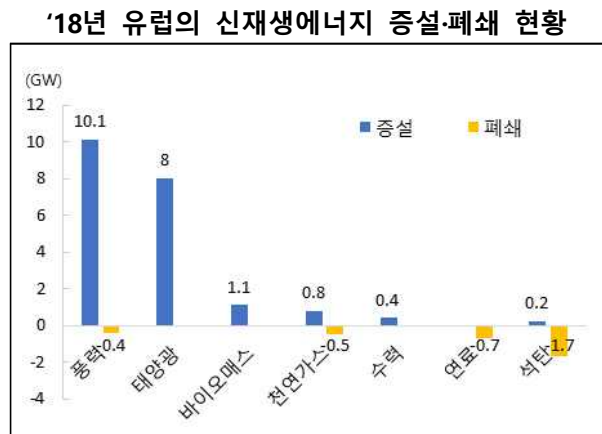
- ◆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풍력발전이 주목 받는 가운데, 해상풍력의 장점과 터빈의 대형화 등으로 최근 해상풍력 산업 확장 추세
- ◆ 국내에서도 해상풍력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중요한 역할이 기대되며 대규모 단지 조성 외에도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

□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, 향후 해상 풍력발전이 확대될 전망

- 탈원전·탈석탄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은 증가 추세이며 풍력발전은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
 -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의 설비용량은 수력발전 다음으로 높은 수준
 - 풍력 발전을 선도하는 유럽의 '18년 신규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10.1GW로 가장 높으며, '18년 누적 풍력발전 설비용량*은 LNG 다음으로 큼
- * '18년 유럽의 누적 발전설비용량 순서는 LNG → 풍력 → 석탄 → 수력 → 원자력 → 태양광 → 석유 → 바이오매스임



자료 : IRENA(2020.1.30 기준)



자료 : WindEurope(2019.2), "Wind energy in Europe in 2018"

- 육상풍력의 한계와 기술 발전에 따라 최근 풍력 시장은 해상풍력으로 확장 추세
 - 풍력발전은 육상에서 먼저 도입되었으나, 해상의 강하고 일정한 풍력과 터빈 대형화에 따른 설비이용률의 향상 등으로 최근 해상풍력으로 확장 추세
 - 글로벌 풍력발전의 신규 설치용량 중 해상풍력의 비중은 '14년 3%에서 '18년 8%까지 성장하였으며, '30년까지 30GW의 보급목표를 갖고 있음

□ 국내에서도 풍력은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에너지원이며, 정부의 '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'의 보급목표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 역할이 중요

- 국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의 주요 에너지원은 태양광과 풍력이나, 풍력은 보급목표 대비 실적이 미흡한 실정
 - 정부의 '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'에 따르면, 정부는 '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48.7GW 공급할 예정이며, 이중 태양광이 30.8GW, 풍력이 16.5GW(육상풍력 4.5GW, 해상풍력 12GW) 차지
 -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은 '18년 기준 태양광은 143% 달성하였으나, 풍력은 84%로 목표실적에 미달*

*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'18년 기준 국내 태양광 보급은 2,027MW, 풍력 보급은 168MW

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(2017.12), "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(안)"

-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잠재 발전량이 풍부한 해상풍력의 적극적인 도입 필요
 -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인 48.7GW 중 약 25%를 차지하는 해상풍력 역할에 무게를 두고 적극적 추진 필요
 - 풍력의 시장 잠재 발전량은 해상풍력(70,996Gwh/년)이 육상풍력(38,622Gwh/년)의 약 1.8배 수준

국내 풍력 잠재 발전량

(단위 : Gwh/년)

구분	이론적 잠재 발전량	기술적 잠재 발전량	시장 잠재 발전량
육상풍력	942,142	755,771	38,622
해상풍력	1,384,904	1,175,786	70,996

주 : 이론적 잠재 발전량은 동일 스펙의 풍력 터빈 설치를 가정하여 잠재량을 산정하고, 기술적 잠재 발전량은 이론적 잠재 발전량에 지리적 영향요인 및 기술적 영향요인을 반영하여 산정하며, 시장 잠재 발전량은 추가적으로 정부 규제 정책과 경제성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여 산정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·한국에너지공단(2018.12), "2018 신·재생에너지 백서"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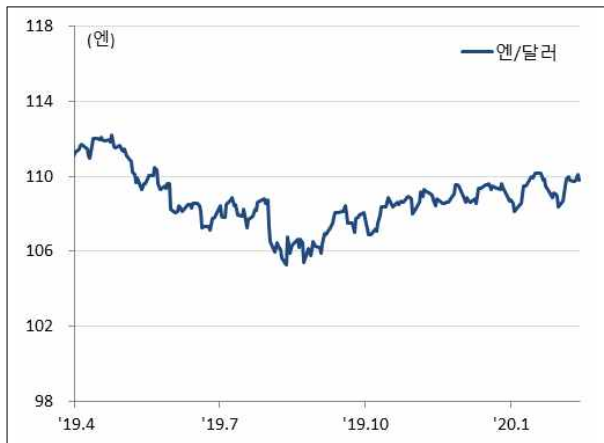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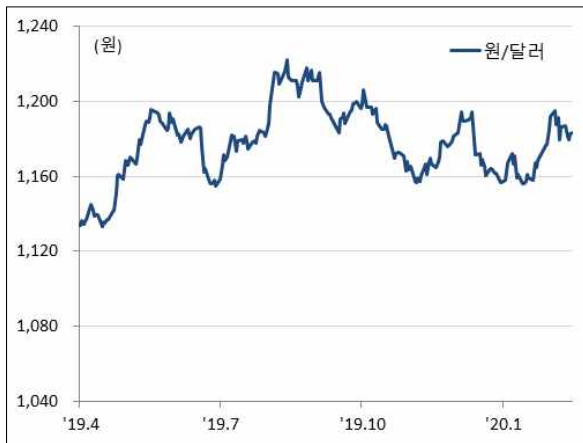
- 국내에서는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여 해상풍력 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 중이나 해상풍력의 남겨진 과제에 대해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
- 국내에서는 해상풍력 Track Record를 확보하고,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해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해상풍력 지원 확대
 - '18년 기준 국내 풍력 터빈 시장은 해외 풍력 터빈 제조사가 47.7%를 차지하고, 국내 해상풍력 터빈 제조사 중 국제형식인증*을 보유한 곳은 두산중공업 등 일부
 - * 형식인증은 풍력발전기의 형식이 국제요건에 따라 적합하게 설계되고 제작되어 설계된 대로 성능을 보이는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
 - 국내 터빈 제조사의 해상풍력 Track Record를 확보하고, 해상풍력의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, 서남해 해상풍력 개발단지, 신안 해상풍력 개발단지 등 대규모 실증 단지를 조성하여 사업 추진
- 다만, 국내 해상풍력은 경제성 개선과 더불어 주민 수용성에 대한 갈등 해결도 필요
 - 현재 글로벌 해상풍력의 LCOE*는 지난 5년간 25% 하락하였고, 최근 IEA는 터빈 크기 증가 등으로 인해 '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30%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
 - * LCOE(Levelized Cost of Energy Analysis) : 균등화 발전원가로서, 단위 에너지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
 - LCOE의 하락을 위해서는 풍력 발전단지의 비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빈의 성능 향상이 필요하며, 해상풍력의 발전단지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
 - 아울러 해상풍력발전이 육상풍력 대비 입지선정이 비교적 자유로우나 어민의 생존권 침해, 사업 추진시 소통의 부재 등으로 주민 수용성 문제 발생
 - 향후 해상풍력 단지 조성시 어민들과 상생하는 풍력 단지 개발이 필요

금리 · 환율 · 주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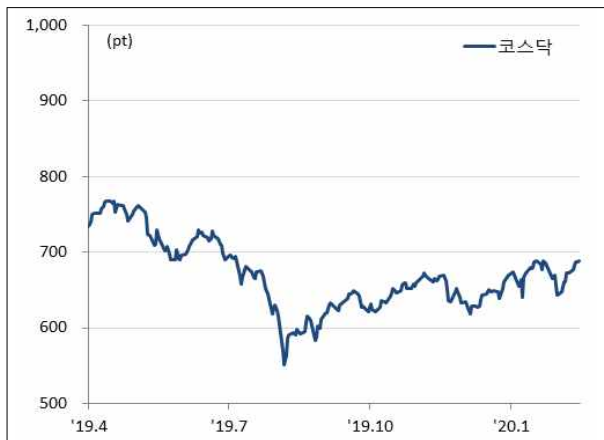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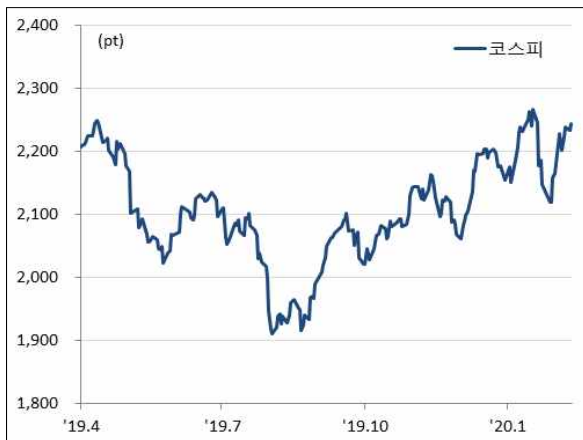
금 리 국고채3년 1.33% (5.0bp ↑), 신용스프레드 40.6bp (0.1bp ↓)



환 율 원/달러 1,183원 (3.5원 ↓), 엔/달러 109.78엔 (0.02엔 ↑)



주 가 코스피 2,243.59pt (1.43% ↑), 코스닥지수 688.91pt (2.42% ↑)



* ()는 전주대비 상승 ↑, 하락 ↓, 신용스프레드와 엔/달러는 목요일 종가 기준

주간 KDB리포트

Weekly KDB Report

제866호

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

인터넷 rd.kdb.co.kr, kdb.co.kr
문의 787.7826

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.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, 원고의 무단전재, 복제,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.